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지난 화요일(4/18) PCA 한인동북교회 정기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노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담임목사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Challengers21 정기모임으로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 4월 25일(화)에는 뉴저지필그림교회 교사대학 구약강의를 위해 다녀옵니다.
- 이번 주 금요기도회(4/28)에는 혼두라스 최문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지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2017년 4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황혜영 집사/시편 116:1-4, 12-19  
 이번 주 친교: 한주루/황혜영 집사  
 다음 주 친교: 백희진/이현주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에배순서

2017년 4월 23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25 장(통 25 장) “면류관 벗어서”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6 편	기세학 집사
찬양(Choir)	“주는 내 목자시니”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3:25 - 4:7	인도자
설교 (Sermon)	“돌아온 아들”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249 장(통 249 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체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4. 9. 중려주일 설교 요약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갈 3:15-24)

오늘 본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행위나 믿음이나, 율법이나 은혜나에 관한 이 중요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학적인 정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셨다는 사실과 그 소식을 듣고 예수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네 씨”를 통해 만민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후손은 아브라함 집에서 기른 종도, 할아버지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약속대로 주신 이삭을 통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여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히 11:19)”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육신의 아들 이삭은 죽고, 약속대로 받은 아들,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러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대로 오신 아들, 믿음으로 받은 아들, 그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기여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았다는 혈통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졌고, 그를 믿는 믿음이 그 구원에 들게 했습니다.

율법은 이 약속을 주신 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혈통이 하나님의 약속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뤄지기까지는 소망 중에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뤄진 후에는 그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오실 때 믿게 하는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혜 없이는 멸망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용서가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은혜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식 학교에 가기 전까지 보호해주던 초등학교와 같은 역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학교에 들어가서도 초등학교사에게 배운 인생의 기본 원칙들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감격과 담대함으로,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선한 행실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은혜가 오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가 구원을 이룰 것처럼 여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예수그리스도 오신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중려주일은 약속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대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드린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에 들어가시던 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환영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미워했고, 아무 것도 모르고 부화뇌동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구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약속의 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도 오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기 원합니다. [재림을 의미하거나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인 약속대로 주신 구주임이,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인 것이 다시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실망과 교만을 이기고 다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마음 풀이하며 지키는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룩과 선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차매 오신 것처럼 때가 이르매 거둘 것입니다(갈 6:9).